

한국의 *Pseudococcus*속(Homoptera: Coccoidea: Pseudococcidae)의 분류형질, 분포 및 기주

권기면, 고현관¹, 최준열, 유재기

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, ¹농촌진흥청 연구운영과

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는 가루각지벌레과는 흡즙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만아니라, 감로를 배출하여 그을음병을 유발하고, virus를 매개하여 더 큰 피해를 준다. 가루각지벌레과는 전 세계적으로 288속 1,947종이 보고되어 있고, 이중 *Pseudococcus*속은 157종이 기록되어 있다 (Ben-Dov, 1994). 일본에는 *Pseudococcus*속에 4종을 포함하여 가루각지벌레과에 67종이 기록되어 있고(Kawai 1980), 한국은 *Pseudococcus*속에 1종을 포함하여 가루각지벌레과에 33종이 보고되어 있다(백, 2000).

*Pseudococcus*속은 등면의 가장자리에 부속 센털이 있는 가시털용기부가 12-17쌍이 있고, 센털이 길며, 버섯꼴분비관이 있는 형태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고, 버섯꼴분비관의 개수와 위치, 좁쌀눈샘구멍의 개수, 분비관의 크기와 모양으로 종을 동정할 수 있다.

본 연구에서는 농업과학기술원에 소장하고 있는 가루각지벌레과 866점의 표본을 관찰하여 *Pseudococcus*속에 4종을 확인하였으며, 한국기록종인 가루각지벌레(*P. comstocki* (Kuwana))와 한국미기록종인 굴애가루각지벌레(가칭) (*P. cryptus* Hempel), 난가루각지벌레(가칭) (*P. dendrobiorum* Williams)와 긴꼬리가루각지벌레 (*P. longispinus* (Targioni Tozzetti)) 3종이 밝혀졌다. 가루각지벌레는 나주 등 15개 시군에서 배 등 18종의 식물에서, 굴애가루각지벌레는 서귀포 등 4개 시군에서 감귤 등 4종, 난가루각지벌레는 안성에서 텐파레와 호접란에서, 긴꼬리가루각지벌레는 성남 등 5개시군에서 행운목 등 5종의 식물에서 각각 채집되었다.